

## 표준어 규정

###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

#### 제1장 총칙

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.

####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

##### 제1절 자음

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끄나풀 나팔-꽃 넉 부억 살-팽이 칸  털어-먹다	끄나불 나발-꽃 넉 부억 삼-팽이 칸  떨어-먹다	동~, 들~, 새벽~, 동틀 ~.  1. ~막이, 빈~, 방 한 ~. 2. '초가삼간, 윗간'의 경우에는 '간'임. 재물을 다 없애다.

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가을-같이 거시기 분침	가을-카리 거시키 푼침	

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강낭-콩 고삐	강남-콩 고살	겉~, 속~.

사글-세 울력-성당	삭월-세 위력-성당	‘월세’는 표준어임. 때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다만,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갈비 갈모	가리 갈모	~구이, ~찜, 갈빗-대. 1. 사기 만드는 물레 밀 고리. 2. ‘갈모’는 갈 위에 쓰는, 유지로 만든 우비.
굴-젓 말-결 물-수란 밀-뜨리다 적-이 휴지	구-젓 말-젓 물-수랄 미-뜨리다 저으기 수지	적이-나, 적이나-하면.

**제6항**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,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둘 둘-째 셋-째 넷-째 빌리다	똥 두-째 세-째 네-째 빌다	생일, 주기. ‘제2, 두 번째’의 뜻. ‘제3, 세 번째’의 뜻. ‘제4, 네 번째’의 뜻. 1. 빌려주다, 빌려 오다. 2. ‘용서를 빌다’는 ‘빌다’임.

다만, ‘둘째’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‘두째’로 한다.

ㄱ	ㄴ	비 고
열두-째 스물두-째		열두 번째의 뜻은 ‘열둘째’로. 스물두 번째의 뜻은 ‘스물둘째’로.

**제7항**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‘수-’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수-꿩 수-나사 수-놈 수-사돈 수-소	수-꿩/숫-꿩 숫-나사 숫-놈 숫-사돈 숫-소	‘장끼’도 표준어임.    ‘황소’도 표준어임.

수-은행나무	숫-은행나무	
--------	--------	--

다만 1.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. 접두사 ‘암-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수-강아지	숫-강아지	
수-개	숫-개	
수-것	숫-것	
수-기와	숫-기와	
수-닭	숫-닭	
수-탕나귀	숫-탕나귀	
수-뜯찌귀	숫-뜯찌귀	
수-돼지	숫-돼지	
수-평아리	숫-병아리	

다만 2.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‘숫-’으로 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숫-양	수-양	
숫-염소	수-염소	
숫-쥐	수-쥐	

## 제2절 모음

**제8항**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깡충-깡충 -둥이	깡충-깡충 -둥이	큰말은 ‘깡충깡충’임. ←童-이. 귀-, 막-, 선-, 쌍-, 검-, 바람-, 흰-.
빨가-송이	빨가-송이	센말은 ‘빨가송이’, 큰말은 ‘별거 송이, 빨거송이’임.
보통이 봉죽	보통이 봉죽	←奉足. ~꾼, ~들다.
뺨장-다리 아서, 아서라	뺨장-다리 앗아, 앓아라	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. 부사도 ‘오뚝-이’임.
오뚝-이 주추	오뚝-이 주초	←柱礎. 주춧-돌.

다만,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부조(扶助) 사돈(查頓) 삼촌(三寸)	부주 사둔 삼춘	~금, 부죗-술. 밭~, 안~. 시~, 외~, 처~.

**제9항** ‘ㄱ’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,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내기 냄비 동댕이-치다	-나기 남비 동당이-치다	서울-, 시골-, 신출-, 풋-.

[붙임 1] 다음 단어는 ‘ㄱ’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아지랑이	아지랭이	

[붙임 2] 기술자에게는 ‘-장이’, 그 외에는 ‘-쟁이’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-덩굴 골목쟁이 밭목쟁이	미쟁이 유기쟁이 멋장이 소금장이 담장이-덩굴 골목장이 밭목장이	

**제10항**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괴팍-하다 -구면 미루-나무 미룩 여느 온-달 으레	괴팍-하다/괴팍-하다 -구면 미류-나무 미력 여너 윈-달 으레	←美柳~. ←彌勒. ~보살, ~불, 돌~. 만 한 달.

케케-묵다 허우대 허우적-허우적	케케-묵다 허위대 허위적-허위적	허우적-거리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**제11항**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,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구려 각쟁이	-구료 각정이	1. 서울~, 알~, 찰~. 2. 도토리, 상수리 등의 받침은 '각정이'임.
나무라다 미수 바라다 상추 시러베-아들 주책 지루-하다 튀기 허드레 호루라기	나무래다 미시 바래다 상치 실업의-아들 주착 지리-하다 트기 허드래 호루루기	미숫-가루. '바람[所望]'은 비표준어임. ~쌈.  ←主着. ~망나니, ~없다. ←支離.  허드렛-물, 허드렛-일.

**제12항** '웃-' 및 '윗-'은 명사 '위'에 맞추어 '윗-'으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윗-넓이 윗-눈썹 윗-니 윗-당줄 윗-덧줄 윗-도리 윗-동아리 윗-막이 윗-머리 윗-목 윗-몸 윗-바람 윗-배 윗-벌 윗-변 윗-사랑	웃-넓이 웃-눈썹 웃-니 웃-당줄 웃-덧줄 웃-도리 웃-동아리 웃-막이 웃-머리 웃-목 웃-몸 웃-바람 웃-배 웃-벌 웃-변 웃-사랑	준말은 '윗동'임.        ~ 운동.      수학 용어.

윗-세장	웃-세장	
윗-수염	웃-수염	
윗-입술	웃-입술	
윗-잇몸	웃-잇몸	
윗-자리	웃-자리	
윗-중방	웃-중방	

다만 1.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‘위-’로 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위-짹	웃-짹	~구름[上層雲].
위-쪽	웃-쪽	
위-채	웃-채	
위-층	웃-층	
위-치마	웃-치마	
위-턱	웃-턱	
위-팔	웃-팔	

다만 2. ‘아래, 위’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‘웃-’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웃-국	윗-국	~건다.
웃-기	윗-기	
웃-돈	윗-돈	
웃-비	윗-비	
웃-어른	윗-어른	
웃-웃	윗-웃	

**제13항** 한자 ‘구(句)’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‘귀’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, ‘구’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구법(句法)	귀법	~법(對句法).
구절(句節)	귀절	
구점(句點)	귀점	
결구(結句)	결귀	
경구(警句)	경귀	
경인구(警人句)	경인귀	
난구(難句)	난귀	
단구(短句)	단귀	
단명구(短命句)	단명귀	
대구(對句)	대귀	

문구(文句)	문귀	~어(成句語).
성구(成句)	성귀	
시구(詩句)	시귀	
어구(語句)	어귀	
연구(聯句)	연귀	
인용구(引用句)	인용귀	
절구(絶句)	절귀	

다만, 다음 단어는 ‘귀’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-글 글-귀	구-글 글-구	

### 제3절 준말

**제14항**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,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찮다	귀치 않다	~매다.  ~강즁, ~말랭이, ~생채, 가랑~, 갓~, 왜~, 총각~. 1.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. 2. 찢어지다.  설~, 생일~. ~바르다, ~바리.
김	기음	
뽀리	또아리	
무	무우	
미다	무이다	
뺨	배암	
뺨-장어	배암-장어	
빔	비음	
쌈	새암	
생-취	새양-취	
술개	소리개	
온-갓	온-가지	
장사-치	장사-아치	

**제15항**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,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경황-없다	경-없다	
궁상-떨다	궁-떨다	
귀-개	귀-개	

낚새 낙인-찍다 내왕-꾼 돛-자리 뒤웅-박 뒷물-대야 마구-잡이 맷자-하다 모이 벽-돌 부스럼  살얼음-판 수두룩-하다 암-죽 어음 일구다 죽-살이 퇴박-맞다 한통-치다	낚 낙-하다/낙-치다 냉-꾼 돛 똥-박 뒷-대야 막-잡이 맷자다 모 벽 부럼  살-판 수둑-하다 암 엄 일다 죽-살 퇴-맞다 통-치다	모양이 제격에 어울린다.  정월 보름에 쓰는 ‘부럼’은 표준어임.
---	---	--

[붙임]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아래-로	알-로	

**제16항**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,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은 본말이며, ㄴ은 준말임.)

ㄱ	ㄴ	비 고
거짓-부리 노을 막대기 망태기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석새-삼베 시-누이 오-누이 외우다 이기죽-거리다 찌꺼기	거짓-불 놀 막대 망태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 석새-베 시-뉘/시-누 오-뉘/오-누 외다 이죽-거리다 찌끼	작은말은 ‘가짓부리, 가짓불’임. 저녁~. 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.  외우며, 외워 : 외며, 외어.  ‘찌꺼지’는 비표준어임.

제4절 단수 표준어

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,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,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,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거든-그리다	거둥-그리다	1.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. 2. 작은말은 ‘가든-그리다’임.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.
구어-박다	구워-박다	
귀-고리	귀엣-고리	
귀-땀	귀-땀	
귀-지	귀에-지	
까딱-하면	까뻑-하면	
꼭두-각시	꼭둑-각시	
내색	나색	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.
내숭-스럽다	내홍-스럽다	
냠냠-거리다	얌얌-거리다	냠냠-하다.
냠냠-이	얌얌-이	
너[四]	네	~ 돈, ~ 말, ~ 발, ~ 푼.
넉[四]	너/네	~ 냥, ~ 되, ~ 섬, ~ 자.
다다르다	다닫다	
댁-싸리	대-싸리	
더부룩-하다	더뿌룩-하다/듬뿌룩-하다	
-던	-든	선택,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‘-든’임.
-던가	-든가	가-든(지) 말-든(지), 보-든(가)
-던걸	-든걸	말-든(가).
-던고	-든고	
-던데	-든데	
-던지	-든지	
-(으)려고	-(으)러려고/-(으)러라고	
-(으)려야	-(으)러려야/-(으)러래야	
망가-뜨리다	망그-뜨리다	
멸치	머루치/메리치	
반빳-아치	반비-아치	‘반빳’ 노릇을 하는 사람. 찬비(饑婢). ‘반비’는 밥 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.
보습	보십/보섭	
본새	뿐새	
봉숭아	봉숭화	‘봉선화’도 표준어임.
뺨-따귀	뺨-따귀/뺨-따구니	‘뺨’의 비속어임.
뼈개다[斫]	뼈기다	두 조각으로 가르다.

빼기다[誇] 사자-탈 상-판대기 서[三] 석[三] 설령(設令) -습니다  시름-시름 씬벽-션벽 아궁이 아내 어-중간 오금-팽이 오래-오래 -올시다 옹골-차다 우두커니 잠-투정 재봉-틀 짓-무르다 짚-북데기 쪽  천장(天障) 코-맹맹이 흥-엷다	빼개다 사지-탈 쌍-판대기 세/석 세 서령 -읍니다  시늬-시늬 씬벽-션벽 아궁지 안해 어지-중간 오금-탱이 도래-도래 -올습니다 공골-차다 우두머니 잠-투세/잠-주정 자봉-틀 짓-물다 짚-북세기 짹  천정 코-맹녕이 흥-헷다	뺨내다.  ~ 돈, ~ 말, ~ 발, ~ 푼. ~ 냥, ~ 되, ~ 섬, ~ 자.  먹습니다, 갓습니다, 없습디다, 있습니다, 좋습디다. 모음 뒤에는 ‘-디디다’임.  돼지 부르는 소리.  작은말은 ‘오도카니’임.  밭~, 손~.  ‘짚북데기’도 비표준어임. 편(便). 이~, 그~, 저~. 다만, ‘아무-짹’은 ‘짹’임. ‘천정부지(天井不知)’는 ‘천정’임.
---	--	---

### 제5절 복수 표준어

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도 허용한다.

ㄱ	ㄴ	비고
네 쇠-	예 소-	-가죽, -고기, -기름, -머리, - 뺨.
괴다	고이다	물이 ~, 밑을 ~.
피다	꼬이다	어린애를 ~, 벌레가 ~.
쫄다	쏘이다	바람을 ~.
죄다	조이다	나사를 ~.
쫄다	쫄이다	별을 ~.

**제19항**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,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,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.)

ㄱ	ㄴ	비 고
거슴츠레-하다 꼬까 고린-내 교기(驕氣) 구린-내 꺼림-하다 나부랭이	계슴츠레-하다 꼬까 코린-내 갸기 쿠린-내 깨름-하다 너부렁이	~신, ~웃.  교만한 태도.

###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

#### 제1절 고어

**제20항** 사어(死語)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,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난봉 낭떠러지 설거지-하다 애달프다 오동-나무 자두	봉 낭 설겅다 애닭다 머귀-나무 오얏	

#### 제2절 한자어

**제21항**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,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가루-약 구들-장 길품-삿 까막-눈 꼭지-미역 나뭇-갓 늪-다리 두껍-담이 떡-암죽 마른-갈이	말-약 방-돌 보행-삿 맹-눈 총각-미역 시장-갓 노-닥다리 두껍-창 병-암죽 건-갈이	

마른-빨래 메-찰떡 박달-나무 밥-소라 사래-논 사래-밭 샅-말 성냥 솟을-무늬 외-지다 움-파 잎-담배 잔-돈 조-당수 죽더기 지겟-다리 짐-꾼 푼-돈 흰-말 흰-죽	건-빨래 반-찰떡 배달-나무 식-소라 사래-답 사래-전 샅-마 화-괵 솟을-문(~紋) 벽-지다 동-파 잎-초 잔-전 조-당죽 피-죽 목-발 부지-군(負持-) 분-전/푼-전 백-말/부루-말 백-죽	큰 낫그릇. 묘지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.  ‘죽더기’도 비표준어임.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.  ‘백마’는 표준어임.
--	---	--

**제22항**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,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개다리-소반 겹-상 고봉-밥 단-벌 마방-집 민망-스럽다/면구-스럽다 방-고래 부항-단지 산-누에 산-줄기 수-삼 심-돋우개 양-과 어질-병 윤-달 장력-세다 제석	개다리-밥상 맞-상 높은-밥 흘-벌 마바리-집 민주-스럽다 구들-고래 뜸-단지 멧-누에 멧-줄기/멧-밭 무-삼 불-돋우개 둥근-과 어질-머리 군-달 장성-세다 젓-돛	馬房~.

총각-무 칫-술 포수	알-무/알타리-무 잇-술 총-뎡이	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# 제3절 방언

**제23항**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 이 경우,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도 표준어로 남겨둠.)

ㄱ	ㄴ	비 고
명개 물-방개 애-순	우렁 쉰이 선두리 어린-순	

**제24항**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,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귀밑-머리 까-몽개다 막상 빈대-떡 생인-손 역-겹다 코-주부	곶-머리 까-무느다 마기 빈자-떡 생안-손 역-스렵다 코-보	준말은 '생-손'임.

### 제4절 단수 표준어

**제25항**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,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,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ㄱ	ㄴ	비 고
-게끔 겸사-겸사 고구마 고치다 골목-쟁이 광주리 괴통 국-물 군-표 길-잡이	-게시리 겸지-겸지/겸두-겸두 참-감자 낮우다 골목-자기 광우리 호구 멸-국/말-국 군용-어음 길-앞잡이	병을 ~.  자루를 박는 부분.  '길라잡이'도 표준어임.



빙충-이 빠-뜨리다 뻗뻗-하다 뿔-내다 사로-잡그다	빙충-맞이 빠-치다 왜긋다 느물다 사로-채우다	내는 일, 또는 그 흠덩이. 작은말은 ‘뻗충이’. ‘빠트리다’도 표준어임. 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 만 걸어 놓다.
살-풀이 상투-쟁이 새앙-손이 셋-별 선-머슴 섭섭-하다 속-말 손목-시계 손-수레 쇠-고랑 수도-꼭지 숙성-하다 순대 술-고래	살-막이 상투-꼬부랑이 생강-손이 새벽-별 푯-머슴 애운-하다 속-소리 팔목-시계/팔뚝-시계 손-구루마 고랑-쇠 수도-고동 숙-지다 골-집 술-꾸러기/술-부대/술-보/술-푸 대	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.  국악 용어 ‘속소리’는 표준어임. ‘구루마’는 일본어임.
식은-땀 신기-롭다 쌍둥-밤 쏜살-같이 아주 안-걸이 안다미-씩우다	찬-땀 신기-스럽다 쪽-밤 쏜살-로 영관 안-낙시 안다미-시키다	‘신기-하다’도 표준어임.  씨름 용어.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 기다.
안쓰럽다 안절부절-못하다 얇은뻥이-저울 알-사탕 암-내 얇-지르다 애-벌레 얇은-피 언뜻 언제나 얼룩-말 열심-히	안-슬프다 안절부절-하다 얇은-저울 구슬-사탕 결땀-내 따라-먹다 어린-벌레 물탄-피 편뜻 노다지 위라-말 열심-으로	





<p> 목화-씨/면화-씨  무심-결/무심-중  물-봉숭아/물-봉선화  물-부리/빨-부리  물-심부름/물-시중  물추리-나무/물추리-막대  물-타작/진-타작  민둥-산/벌거숭이-산  밑-층/아래-층  바깥-벽/밭-벽  바른/오른[右]  밭-모가지/밭-목쟁이  버들-강아지/버들-개지  벌레/버리지  변덕-스럽다/변덕-맞다  보-조개/불-우물  보통-내기/여간-내기/예사-내기  불-따구니/불-통이/불-때기  부침개-질/부침-질/지짐-질  불뚝-앉다/등화-지다/등화-앉다  불-사르다/사르다  비발/비용(費用)  뽕두라지/뽕루지  살-쟁이/삶  삼살-개/삼사리  상두-꾼/상여-꾼  상-씨름/소-걸이  생/새양/생강  생-뿔/새양-뿔/생강-뿔  생-철/양-철   서럽다/싫다  서방-질/화냥-질  성글다/성기다  -(으)세요/-(으)셔요  송이/송이-머섯  수수-깡/수숫-대  술-안주/안주  -스레하다/-스름하다  시늬-말/흉내-말  시새/세사(細沙)  신/신발 </p>	<p> ~손, ~쪽, ~편.  ‘밭목’의 비속어임.   ‘벌거지, 벌러지’는 비표준어임.   ‘행-내기’는 비표준어임.  ‘불’의 비속어임.  ‘부침개-질’은 비표준어임.   삶-피.   ‘상도-꾼, 향도-꾼’은 비표준어임.   ‘쇠뿔’의 형용.  1. ‘서양철’은 비표준어임.  2. ‘生鐵’은 ‘무쇠’임.  ‘설다’는 비표준어임.   거무-, 밧그-. </p>
--	---

<p> 신주-보/독보(櫛褛)  심술-꾸러기/심술-쟁이  쭙쓰레-하다/쭙쓰름-하다  아귀-세다/아귀-차다  아래-위/위-아래  아무튼/어떻든/어쨌든/하여튼/여하튼  얹음-새/얹음-얹음  알은-척/알은-체  애-같이/애벌-같이  애꾸눈-이/외눈-박이  양념-감/양념-거리  어금버금-하다/어금지금-하다  어기여차/어여차  어림-잡다/어림-치다  어이-없다/어처구니-없다  어저께/어제  언덕-바지/언덕-배기  얼렁-똥땅/엄병-땡  여왕-벌/장수-벌  여쭙다/여쭙다  여태/입때  여태-껏/이제-껏/입때-껏  역성-들다/역성-하다  연-달다/잇-달다  옛-가락/옛-가래  옛-기름/옛-길금  옛-반대기/옛-자박  오사리-잡놈/오색-잡놈  옥수수/강냉이  왕골-기직/왕골-자리  외겹-실/외울-실/홀-실  외손-잡이/한손-잡이  욕심-꾸러기/욕심-쟁이  우레/천둥  우지/울-보  올러-대다/올러-메다  의심-스렵다/의심-쩍다  -이에요/-이어요  이틀-거리/당-고금  일일-이/하나-하나  일찌감치/일찌거니  입찬-말/입찬-소리 </p>	<p> ‘외대-박이, 외눈-통이’는 비표준어임.   ‘여직’은 비표준어임.  ‘여직-껏’은 비표준어임.  ‘편역-들다’는 비표준어임.   ‘오합-잡놈’은 비표준어임.  ~떡, ~묵, ~밥, ~튀김.   ‘홀겹-실, 울-실’은 비표준어임.   우렛-소리/천둥-소리.   학질의 일종임. </p>
---	---

<p> 자리-옷/잠-옷  자물-쇠/자물-통  장가-가다/장가-들다  재롱-떨다/재롱-부리다  제-가끔/제-각기  좀-처림/좀-체  줄-꾼/줄-잡이  중신/중매  짚-단/짚-못  쪽/편  차차/차츰  책-씻이/책-거리  척/체  천연덕-스럽다/천연-스럽다  철-따구니/철-딱서니/철-딱지  추어-올리다/추어-주다  축-가다/축-나다  침-놓다/침-주다  통-꼭지/통-젓  과자-쟁이/해자-쟁이  편지-투/편지-틀  한턱-내다/한턱-하다  해웃-값/해웃-돈  혼자-되다/홀로-되다  흙-가다/흙-나다/흙-지다 </p>	<p> ‘서방-가다’는 비표준어임.   ‘좀-체로, 좀-해선, 좀-해’는 비표준어임.   오른~, 왼~.   모르는 ~, 잘난 ~.   ‘철-때기’는 비표준어임.  ‘추켜-올리다’는 비표준어임.   통에 붙은 손잡이.  점치는 이.   ‘해우-차’는 비표준어임. </p>
---	---



- (1) 눈보라[눈 : 보라]      말씨[말 : 씨]      밤나무[밤 : 나무]  
 많다[만 : 타]      멀리[멀 : 리]      벌리다[벌 : 리다]
- (2) 첫눈[천눈]      참말[참말]      쌍동밤[쌍동밤]  
 수많이[수 : 마니]      눈멀다[눈멀다]      떠벌리다[떠벌리다]

다만,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.  
 반신반의[반 : 신바 : ㄴ/반 : 신바 : 니]      채삼채사[채 : 삼채 : 사]

[붙임]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‘-아/-어’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.

보아→봐[봐 : ]      기어→겨[겨 : ]      되어→돼[돼 : ]  
 두어→뒤[뒤 : ]      하여→해[해 : ]

다만, ‘오아→와, 지어→져, 찌어→찌, 치어→쳐’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**제7항**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.

1.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
 감다[감 : 따] - 감으니[가므니]      밟다[밥 : 따] - 밟으면[발브면]  
 신다[신 : 따] - 신어[시너]      알다[알 : 다] - 알아[아라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끝다[끝 : 다] - 끌어[끄 : 러]      뚫다[뚫 : 따] - 뚫은[뚫 : 븐]  
 벌다[벌 : 다] - 벌어[버 : 러]      썰다[썰 : 다] - 썰어[써 : 러]  
 엮다[엮 : 따] - 엮으니[엮 : 쓰니]

2. 용언 어간에 피동,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

감다[감 : 따] - 감기다[감기다]      꼬다[꼬 : 다] - 꼬이다[꼬이다]  
 밟다[밥 : 따] - 밟히다[발피다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끌리다[끌 : 리다]      벌리다[벌 : 리다]      엮애다[엮 : 썩다]

[붙임]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.

밀-물      썰-물      쓴-살-같이      작은-아버지

## 제4장 받침의 발음

**제8항** 받침소리로는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

**제9항** 받침 ‘ㄱ, ㅋ’, ‘ㅅ, ㅆ, ㅈ, ㅊ, ㅌ’, ‘ㅍ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[ㄱ, ㄷ, ㅂ]으로 발음한다.

닭다[닥따]	키읓[키읓]	키읓과[키읓파]	웃[온]
웃다[울 : 따]	있다[읓따]	젓[젓]	빋다[빋따]
꽃[꼇]	쫓다[쫓따]	술[술]	뵈다[뵈 : 따]
얏[얏]	뵈다[뵈따]		

**제10항** 겹받침 ‘ㄸ’, ‘ㄹ’, ‘ㄺ, ㄻ, ㄼ’, ‘ㅁ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ㄴ, ㄷ, ㅁ]으로 발음한다.

넋[넉]	넋과[넉파]	얏다[안따]	여덟[여덜]
넋다[넉따]	외곶[외골]	핥다[할따]	값[갑]
없다[업 : 따]			

다만, ‘뵈-’은 자음 앞에서 [ㅁ]으로 발음하고, ‘넋-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[넉]으로 발음한다.

- (1) 뵈다[뵈 : 따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뵈소[뵈 : 쏘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뵈지[뵈 : 찌]  
 뵈는[뵈 : 는→뵈 : 는]              뵈게[뵈 : 께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뵈고[뵈 : 꼬]
- (2) 넋-죽하다[넉쭈카다]              넋-둥글다[넉똥글다]

**제11항** 겹받침 ‘ㄹ, ㄺ, ㄻ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ㅁ, ㅂ]으로 발음한다.

닭[닥]	흑과[흑파]	맑다[막따]	늑지[늑찌]
삼[삼 : ]	젊다[점 : 따]	읓고[읍꼬]	읓다[읍따]

다만, 용언의 어간 발음 ‘ㄹ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ㄷ]로 발음한다.

맑게[말궀]	물고[물꼬]	엷거나[얼꺼나]
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**제12항** 받침 ‘ㅎ’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
1. ‘ㅎ(ㅎ, ㅎ)’ 뒤에 ‘ㄱ, ㄷ, ㅈ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[ㅋ, ㅌ, ㅊ]으로 발음한다.

농고[노코]	종던[조 : 던]	쌍지[싸치]
망고[만 : 코]	얏던[안던]	닿지[달치]

[붙임 1] 받침 ‘ㄱ(ㄱ), ㄷ, ㅂ(ㅂ), ㅈ(ㅈ)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도, 역시 두 음을 합쳐서 [ㅋ, ㅌ, ㅊ, ㅊ]으로 발음한다.

각하[가카]	먹히다[머키다]	밝히다[발키다]	말형[마텃]
좁히다[조피다]	넋히다[넉피다]	꽃히다[꼬치다]	얏히다[안치다]

[붙임 2] 규정에 따라 ‘ㄷ’으로 발음되는 ‘ㅅ, ㅆ, ㅈ, ㅊ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웃 한 벌[오탄벌]	낫 한때[나탄때]
꽃 한 송이[꼬탄송이]	술하다[수타다]

2. ㅎ(ㅎ, ㅎ) 뒤에 ‘ㅅ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ㅅ’을 [ㅆ]으로 발음한다.

당소[다 : 쏘]	망소[만 : 쏘]	싫소[실쏘]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

3. ‘ㅎ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[ㄴ]으로 발음한다.

놓는[논는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쌍네[싼네]

[붙임] ‘ㄴ, ㄹ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안네[안네]              앓는[안는]              똥네[똥네→똥레]              똥는[똥는→똥른]

\* ‘똥네[똥네→똥레], 똥는[똥는→똥른]’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.

4. ‘ㅎ(ㄴ, ㄹ)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놓은[나은]              놓아[노아]              쌍이다[싸이다]              많아[마 : 나]

앓은[아는]              닳아[다라]              싫어도[시러도]

**제13항**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깎아[까까]              옷이[오시]              있어[이씨]              낮이[나지]

꽃아[꼬자]              꽃을[꼬출]              쫓아[쫓차]              밭에[바테]

앞으로[아프로]              덩이다[더피다]

**제14항**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(이 경우, ‘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함.)

넋이[넉씨]              앓아[안자]              닭을[달글]              젊어[절머]

끓이[글씨]              훑아[할타]              읊어[을퍼]              값을[갑쓸]

없어[업 : 씨]

**제15항** 받침 뒤에 모음 ‘ㅏ, ㅑ, ㅓ, ㅕ, ㅗ’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,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밭 아래[바다래]              늪 앞[느밥]              젓어미[저더미]

맛없다[마덱따]              걸옷[거돋]              헛웃음[허두슴]

꽃 위[꼬뒤]

다만, ‘맛있다, 멋있다’는 [마신타], [머신타]로도 발음할 수 있다.

[붙임] 겹받침의 경우에는,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.

넋 없다[너덱따]              닭 앞에[다가페]              값어치[가버치]

값있는[가빈는]

**제16항**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, ‘ㄷ, ㅈ, ㅊ, ㅋ, ㅌ, ㅍ, ㅎ’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 음과 같이 발음한다.

디글이[디그시]              디글을[디그슬]              디글에[디그세]

지웃이[지으시]              지웃을[지으슬]              지웃에[지으세]

치웃이[치으시]              치웃을[치으슬]              치웃에[치으세]

키웁이[키으기]              키웁을[키으글]              키웁에[키으게]

티을이[티으시]	티을을[티으슬]	티을에[티으세]
피을이[피으비]	피을을[피으블]	피을에[피으베]
히을이[히으시]	히을을[히으슬]	히을에[히으세]

## 제5장 음의 동화

**제17항** 받침 ‘ㄷ, ㅌ(ㅌ)’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‘ㅣ’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[ㅈ, ㅊ]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곧이듣다[고지듣따]	굳이[구지]	미단이[미 : 다지]
땀받이[땀바지]	밭이[바치]	벼훔치[벼훔치]

[붙임] ‘ㄷ’ 뒤에 접미사 ‘히’가 결합되어 ‘티’를 이루는 것은 [치]로 발음한다.

굳히다[구치다]	단히다[다치다]	묻히다[무치다]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**제18항** 받침 ‘ㄱ(ㄱ, ㅋ, ㆁ, ㄷ, ㄷ), ㄴ(ㄴ, ㄷ, ㅌ, ㅌ)’은 ‘ㄴ, ㄷ’ 앞에서 [ㅇ, ㄴ, ㄷ]으로 발음한다.

먹는[멍는]	국물[궁물]	깎는[깡는]	키움만[키움만]
뭉뭉이[몽뭉씨]	긋는[궁는]	흙만[흥만]	닫는[단는]
깃는[진 : 는]	웃맵시[온맵씨]	있는[인는]	맞는[만는]
젓명울[전명울]	쫓는[쫘는]	꽃망울[꼰망울]	붙는[분는]
놓는[논는]	잡는[잠는]	밥물[밤물]	앞마당[암마당]
뺏는[밤 : 는]	옴는[음는]	없는[엄 : 는]	

[붙임]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책 넣는다[챙넌는다]	흙 말리다[흥말리다]	웃 맞추다[온맞추다]
밥 먹는다[밤멍는다]	값 매기다[감매기다]	

**제19항** 받침 ‘ㄷ, ㅇ’ 뒤에 연결되는 ‘ㄹ’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
담력[담 : 녁]	침략[침 : 낙]	강릉[강능]	항로[항 : 노]
대통령[대 : 통녕]			

[붙임] 받침 ‘ㄱ, ㅌ’ 뒤에 연결되는 ‘ㄹ’도 [ㄴ]으로 발음한다.

막론[막논→망논]	석류[석뉴→성뉴]	협력[협녁→협녁]
법리[법니→범니]		

**제20항** ‘ㄴ’은 ‘ㄹ’의 앞이나 뒤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- (1) 난로[날 : 로]      신라[실라]      천리[철리]  
 광한루[광 : 할루]      대관령[대 : 괄령]
- (2) 칼날[칼랄]      물난리[물랄리]      줄넘기[줄림기]  
 할는지[할른지]

[붙임] 첫소리 ‘ㄴ’이 ‘ㄹ’, ‘ㄹ’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닿는[달른]      뚫는[뚫른]      활네[할래]

다만,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‘ㄹ’을 [ㄴ]으로 발음한다.

의견란[의 : 견난]	임진란[임 : 진난]	생산량[생산냥]
결단력[결판녁]	공권력[공편녁]	동원령[동 : 원녕]
상견례[상견네]	횡단로[횡단노]	이원론[이 : 원논]
입원료[이원뇨]	구근류[구근뉴]	

**제21항**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.

감기[감 : 기](×[강 : 기])	옷감[온감](×[옥감])
있고[인꼬](×[익꼬])	꽃길[꼴길](×[꼭길])
젓먹이[전머기](×[점머기])	문법[문뻘](×[뭉뻘])
꽃밭[꼴밭](×[꼭밭])	

**제22항**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[어]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, [여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되어[되어/되여]      피어[피어/피여]

[붙임] ‘이오, 아니오’도 이에 준하여 [이요, 아니요]로 발음함을 허용한다.

## 제6장 경음화

**제23항** 받침 ‘ㄱ(ㄲ, ㅋ, ㆁ, ㄷ, ㄸ, ㅌ, ㅍ, ㅍ, ㅍ)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ㄷ, ㅌ, ㅍ, ㅍ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국밥[국뻘]	깎다[깍따]	넋받이[넋빠지]	샷돈[샷똥]
닭장[닥짱]	취범[취뻘]	뺨대다[뺨때다]	웃고름[웃꼬름]
있던[인뻘]	꽃고[꼴꼬]	꽃다발[꼴따발]	낮설다[날썰다]
발같이[반까리]	술전[순뻘]	곱돌[곱똥]	덧개[뎡개]
옆집[엩집]	넙죽하다[넙쭈카다]	읍조리다[읍쪼리다]	값지다[갑찌다]

**제24항** 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ㅌ, ㅍ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신고[신 : 꼬]	껴안다[껴안따]	앞고[안꼬]	엎다[언따]
삼고[삼 : 꼬]	더듬지[더듬찌]	닭고[담 : 꼬]	끓지[점 : 찌]

다만, 피동, 사동의 접미사 ‘-기-’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안기다      감기다      굶기다      읊기다

**제25항** 어간 받침 ‘ㄹ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ㅌ, ㅍ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넋개[넋개]      활다[할따]      흙소[흙쏘]      뚫지[뚫 : 찌]

**제26항** 한자어에서, ‘ㄹ’ 받침 뒤에 연결되는 ‘ㄷ, ㅌ, ㅍ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갈등[갈똥]	발동[발똥]	절도[절뜨]	말살[말쌀]
불소[불쏘](弗素)	일시[일씨]	갈증[갈쭙]	물질[물썰]

발전[발쩐]

물상식[물쌍식]

불세출[불썰출]

다만,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허허실실[허허실실](虛虛實實)    절절-하다[절절하다](切切-)

**제27항** 관형사형 ‘-(으)르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할 것을[할꺼슬]	갈 데가[갈떼가]	할 바를[할빠를]
할 수는[할쑤는]	할 적에[할쩌게]	갈 곳[갈꼐]
할 도리[할또리]	만날 사람[만날싸람]	

다만,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.

[붙임] ‘-(으)르’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할걸[할겘]	할밖에[할빠께]	할세라[할썰라]
할수록[할쑤록]	할지라도[할쩌라도]	할지언정[할쩌언정]
할진대[할쩐대]		

**제28항**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,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(휴지가 성립되는) 합성어의 경우에는, 뒤 단어의 첫소리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을 된소리로 발음한다.

문-고리[문꼬리]	눈-동자[눈똥자]	신-바람[신빠람]
산-새[산썰]	손-재주[손썰주]	길-가[길까]
물-동이[물똥이]	발-바닥[발빠닥]	굴-속[굴 : 쑥]
술-잔[술짚]	바람-결[바람겘]	그믐-달[그믐딸]
아침-밥[아침빠]	잠-자리[잠짜리]	강-가[강까]
초승-달[초승딸]	등-불[등뽕]	창-살[창쌀]
강-줄기[강쑤기]		

### 제7장 음의 첨가

**제29항**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‘이, 야, 여, 요, 유’인 경우에는, ‘ㄴ’ 음을 첨가하여 [니, 냐, 녀, 뇨, 뉴]로 발음한다.

숨-이불[숨 : 니불]	홀-이불[혼니불]	막-일[망닐]
샷-일[상닐]	맨-입[맨닙]	꽃-잎[꼐닙]
내복-약[내 : 봉낙]	한-여름[한녀름]	남존-여비[남존녀비]
신-여성[신녀성]	색-연필[생년필]	직행-열차[지캐널차]
늑막-염[능망념]	콩-엿[콩녘]	담-요[담 : 뇨]
눈-요기[눈뇨기]	영업-용[영업뇽]	식용-유[시공뉴]
백분-율[백뽀닐]	밤-웃[밤 : 뇨]	

다만, 다음과 같은 말들은 ‘ㄴ’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,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.

이죽-이죽[이중니죽/이주기죽]	야금-야금[야금냐금/야그먄금]
검열[검 : 녘/거 : 멸]	올랑-올랑[올랑놀랑/올랑올랑]

금용[금녕/그똥]

[붙임 1] ‘ㄹ’ 받침 뒤에 첨가되는 ‘ㄴ’ 음은 [ㄹ]로 발음한다.

들-일[들 : 릴]	술-있[술립]	설-익다[설릭따]
물-약[물략]	불-여우[불려우]	서울-역[서울력]
물-옛[물련]	휘발-유[휘발류]	유들-유들[유들류들]

[붙임 2]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한 일[한닐]	옷 입다[온닙따]	서른여섯[서른녀션]
3 연대[삼년대]	먹은 옛[머근년]	할 일[할릴]
잘 입다[잘립따]	스물여섯[스물려션]	1 연대[일련대]
먹을 옛[머글련]		

다만,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‘ㄴ(ㄹ)’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.

6·25[유기오]	3·1절[사밀쩨]	송별-연[송 : 베틀]
등-용문[등용문]		

**제30항**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. ‘ㄱ, ㄷ, ㅂ, ㅅ, ㅈ’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이시옷을 [ㄷ]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넋가[내 : 까/넛 : 까]	셋길[새 : 낄/셋 : 낄]
빨랫돌[빨래뜰/빨랜뜰]	콧등[코똥/콧똥]
깃발[기빨/깃빨]	대팻밥[대 : 꺾팍/대 : 꺾팍]
햇살[해쌀/헛쌀]	뱃속[배쑥/뺨쑥]
뱃전[배쩨/뺨쩨]	고갯짓[고개쩨/고갯쩨]

2. 사이시옷 뒤에 ‘ㄴ, ㅁ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

콧날[콘날→콘날]	아랫니[아랜니→아랜니]
뿔마루[뿔 : 마루→뿔 : 마루]	뺨머리[뺨머리→뺨머리]

3. 사이시옷 뒤에 ‘이’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ㄴ]으로 발음한다.

베갯잇[베갯닐→베갯닐]	갯잎[갯닙→갯닙]
나뭇잎[나뭇닙→나뭇닙]	도리갯열[도리갯닐→도리갯닐]
뿔웃[뿔 : 늑→뿔 : 늑]	